

# 한국 문화로서의 가톨릭 교회음악에 대한 재조명

- 연도의 선율짜임새에 대한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김수정

##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가톨릭 장례노래인 연도(煉禱)에 대한 음악적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 문화 속에 주체적으로 수용된 가톨릭문화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1920년대 유럽교회의 음악적 전통을 바탕으로 성가집이 간행된 이후<sup>1)</sup>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가톨릭 교회음악은 1924년 『조선어성가』와 1928년 『朝鮮語聖歌』에 수록된 성가들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프랑스와 독일 성가의 음악적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아직까지 서양적 음악어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외래 문화 의존에 대한 고민은 단지 가톨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19세기 이후 근대화의 소용돌이와 세계화의 위세 앞에 한국 사회는 조금씩 외래문화에 잠식되어가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 물론 근대화와 세계화가 모두 한국 사회에 무조건 부정적인 흐름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이것이 우려되는 이유는 근대화와 세계화의 미명 아래 이루어질 수 있는 한국 전통문화의 붕괴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일 것이다. 전통문화의 붕괴는 곧 한국 문화의 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1) 1920년대 간행된 성가집들은 다음과 같다: 1921년 『사리원성가집』(이기준, 서울: 분실), 1923년 『朝鮮語聖歌』(덕원분도회, 서울: 분실), 1924년 『조선어성가』(원형근 Larribeau Adrien·우일모 Villemot Paul, 서울), 1928년 『朝鮮語聖歌』(덕원분도회, 원산), 1928년 『공교성가집』(텔랑드, 대구).

이러한 이유로 학계나 사회 각계에서는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교회 역시 같은 문제를 고민하며 노력하고 있다. 이 논문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전래 이후<sup>2)</sup> 지금까지 꾸준히 그 전통을 유지하며 현재까지도 한국 문화와의 관계성에 대한 여지를 가장 많이 제시하는 한국 가톨릭의 장례노래인 연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도(煉禱)’는 『상장예식』<sup>3)</sup>의 규범에 따라 행해지는 가톨릭 상장례의 부분으로, 한국 가톨릭에서는 『상장예식』 중 ‘위령기도’<sup>4)</sup>를 연도라 하여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한 기도’로 상장예식과는 별도로 바치고 있다. 여기서 연도라 함은 그 내용만이 아니라 향유의 형식에 있어서 국악의 전통에 따라 가톨릭의 정신을 드러내는 음악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지칭하는 것이다. 간혹 지역에 따라 연도가 가창(歌唱)되거나 음영(吟詠)되기보다는 책을 읽듯 율독(律讀)되는 경우(호남 일부와 제주지역)<sup>5)</sup>를 접할 수도 있으나, 아직까지 연도의 음악적 생명은 한국 가톨릭 안에서의 고유한 전통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지금까지 한 편의 박사논문 외에도 상당한 연구업적이 축적되었다.<sup>6)</sup>

- 2) 강영애, 「천주교 연도(위령기도)의 음악적 연구」, 『예술논집』 4(전남대학교 예술연구소, 2001), 115쪽 참조.
- 3)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편, 『상장예식』, 가톨릭출판사, 2003.
- 4)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편, 『상장예식』, 54-124쪽.
- 5) 강영애, 「한국천주교 장례노래(연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92-93쪽 참조.
- 6) 강영애, 「천주교 연도(위령기도)의 음악적 연구」, 『예술논집』 4(전남대학교 예술연구소, 2001), 107-132쪽; 「한국천주교 장례노래(연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최종민 「천주교 연도의 음악구조 연구. 구연도를 중심으로」, 『음악과 민족』 27(민족음악학회 2004), 117-204쪽. 전대섭, 「연도의 모든 것: 위령성월 기획」, 『가톨릭신문』(1995. 11. 12, 19). 조광, 「연도를 노래함」, 『경향잡지』(2002. 12). 허윤석, 「한국 천주교 상장례(喪祭禮)문화의 토착화」, 『천주교한마음운동본부 심포지엄』, 천주교한마음운동본부, 2002; 「연도의 역사와 현재: 죽음 저편의 희망을 노래하다」, 『생활성서』 11(생활성서사, 2003). 황종렬, 「연도에 관한 종합적 연구의 필요성을 내다보면서」, 『빛두레』 12(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2004).

이 중에서 음악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에는 강영애의 「한국천주교 장례 노래(연도)에 관한 연구」와 최종민의 「천주교 연도의 음악구조 연구. 구 연도를 중심으로」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연도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가 구전의 전통 속에서 가창된 가락을 녹취하여 채보한 자료들을 근거로 이루어진 데 반해, 이 글에서는 한국 가톨릭 초기 성가집<sup>7)</sup>에 수록된 ‘도문’<sup>8)</sup>과의 비교를 통해 연도노래의 짜임새적 특성을 관찰하고자 한다. 먼저 구전으로 전해지는 연도노래를 한국 기층민요 갈래 중의 하나인 메나리토리<sup>9)</sup>와 비교하고, 다음으로는 성가집에 수록된 도문과 비교한 후, 마지막으로 유럽중세 교회선법 중 제2선법인 ‘데우테루스(Deuterus)’선법<sup>10)</sup>과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연구 역시 한국 연도노래의 기원을 밝히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리라 생각된다. 한국 가톨릭교회 연도의 전통이 교회뿐 아니라 교회 밖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진정한 삶의 의미로 전달될 수 있는지, 연도의 교회적 의의뿐 아니라 한국 문화 안에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 가치의 한국 사회 안에서의 미래지향적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7) 1928년 『朝鮮語聖歌』(덕원분도회, 원산), 1935년 『聖歌集』(브레흐, 연길), 1938년 『가톨릭성가』(덕원분도회, 원산).

8) 여기서 도문이란 호칭기도(Litania)를 이르는 말이다. 초기 성가집에는 「예수성심도문」, 「예수성명도문」, 「성모덕서도문」, 「성요셉도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참조: 한국 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편, 「호칭기도」, 『한국 가톨릭대사전』: 호칭기도는 일련의 탄원기도의 일종으로서, 구약성서에 이미 그 전형(典型)이 보인다(시편 118, 136, 다니 3, 51-90). 4세기에 동방교회에서 시작되어 5세기말에 로마로 전해졌고 교황 성 젤라시오(St. Gelasius) 1세(재위: 492~496)는 호칭기도를 미사경문에 삽입했고 행렬이나 특별한 의식에 사용하였다.

9) 함경도 전지역, 서북부를 제외한 강원도 전지역, 경상도 전 지역에 이르는 기층음악문화권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10) 데우테루스(Deuterus) 선법이 다른 선법들과 구분되는 데우테루스 선법만의 특징은 종지음을 ‘레’ 그리고 중심음을 ‘파’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선율을 통틀어 가장 지배적인 ‘파’와 종지음으로서 그 중요성이 ‘파’에 못지않게 강조되는 ‘레’를 둘러싸고 ‘라’, ‘도’, ‘솔’ 등이 주요 구성음들로 출현하는 선율짜임새를 가진다.

## 2. 연도노래의 짜임새적 특성

구전으로 전해지는 연도노래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선율의 기원에 대한 문제와 선율 구조에 대한 문제 등을 다루어 왔다. 그리고 연도노래의 선율적 기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통일된 가설로 일괄되어 왔다. 연도노래의 기원을 한반도의 동쪽 즉 함경도와 강원도 그리고 경상도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메나리토리’에서 찾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비록 이 글의 비교연구 대상이 1900년대 초 성가집에 수록된 도문에 한계 지어지지만, 연도노래가 오늘날까지 불려지는데 관여되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족하나마 연도노래 역사의 한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연도의 음악적 특성을 살피기 위한 비교·분석 연구는 선율짜임새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sup>11)</sup> 먼저 비교대상의 선율유형을 분석하고 그로 인해 판단될 수 있는 구성음<sup>12)</sup>과 선법<sup>13)</sup> 그리고 음 비중에 따른 중심음<sup>14)</sup> 문제뿐 아니라 종지유형과 종지음 그리고 선율 진행상의 특이한 몇 가지 사항들을 관찰하게 될 것이다.

### 1) 연도와 메나리토리의 비교

연도노래의 음악적 특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에 의하면, 연도의

- 
- 11) 이 글에서는 연도의 시편129(130)장과 50(51)장의 선율만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호칭기도와 연령을 돕는 찬미기도 등의 선율은 대부분 시편의 그것과 유사한 형태를 취한다.
  - 12) 어떤 음악에 출현하는 음들을 한 옥타브의 음역 안에서 음의 높낮이 순서로 간추려 놓은 체계를 일컫고자 한다.
  - 13) 선율 구조의 변별성을 일컫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로, 이 글에서는 구성음의 관계뿐 아니라 음 비중에 따른 중심음의 문제 그리고 선율유형에 따른 진행적 특성, 종지 유형, 종지음 등 선율 구조의 총체적 특성을 가리킨다.
  - 14) 전체 선율을 구성하는 음들 중에서 그 비중이 가장 큰 음들로 양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그 역할이 가장 돋보이는 음들을 지칭하고자 한다.

선율은 각 지역 민요의 특징에 따라 민요권(民謠圈)을 구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동부민요’로, 각 지역 민요의 음조직상의 특성을 지칭하는 용어인 ‘토리’에 있어서는 ‘메나리토리’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다. 한국 민요의 음조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한국 음악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메나리토리의 이론<sup>15)</sup>에 따라 연도의 선율짜임새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자 한다.

① 각 지역 연도의 선율짜임새

구전되는 연도노래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율의 차이에 따른 지역 구분은 원주지역과 그 밖의 기타지역(기타지역: 서울·수원·청주·대구·회장·예식)으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sup>16)</sup> 그리고 기타지역의 연도는 선율 진행상의 미소한 차이에 따라 다시 서울·수원·청주·대구·회장(기타①)과 예식(기타②)으로 나누어진다.

ㄱ. 기타①

기타① 연도노래의 진행상에 따른 선율유형<sup>17)</sup>은 다음과 같다:

15) 김영운, 「한국 민요 선법의 특징. 기존 연구 성과의 재해석을 중심으로」, 『한국 음악연구』 28(한국국악학회, 2000), 15-45쪽 참조.

16) 강영애, 「한국천주교 장례노래(연도)에 관한 연구」, 8, 94, 95, 96쪽, 97쪽 참조.

자료명	가창자	채록자	녹취연도
원주	김종수 (남, 당시 82세)	강영애	2004
수원	라은선 (여, 당시 78세)	강영애	2004
대구	최칠년 (여, 당시 93세)	강영애	2004
청주	조영선 (남, 당시 62세)	강영애	2004
서울	미아3동 연령회원	강영애	1989
회장	전국연령회연합회장단	최종민	1993
예식	김득수, 『상장예식』	김득수	1991

17) 선율의 진행상 보이는 일정한 유형들을 관찰하여 분석·정리하는 것이다. ‘음들의 길’이라고나 할까. 여기서는 ‘선율유형’이라는 용어로 이를 대신하고자 한다.

- (서울①) 레 ↑ 파 ↓ 레 ↓ 도<sup>18)</sup>  
 (서울②) 레 ↑ 파 ↓ 레 ↓ 라 ↑ 레  
 (수원①) 라 ↑ 레 ↓ 도  
 (수원②) 레 ↑ 파 ↓ 레 ↓ 도  
 (수원③) 라 ↑ 레 ↓ 라 ↑ 레  
 (청주①) 라 ↑ 레 ↓ 도  
 (청주②) 레 ↑ 파 ↓ 레 ↓ 라 ↑ 레  
 (청주③) 라 ↑ 레 ↓ 라 ↑ 레  
 (대구①) 레 ↑ 파 ↓ 레 ↓ 도  
 (대구②) 레 ↑ 파 ↓ 레 ↓ 라 ↑ 레  
 (회장①) 레 ↑ 파 ↓ 레 ↓ 도  
 (회장②) 라 ↑ 레 ↓ 도  
 (회장③) 레 ↑ 파 ↓ 레 ↓ 라 ↑ 레

다음의 분석은 기타①의 선율짜임새를 살피기 위해 서로 관련된 선율들을 가까이 모아 그 구성음의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이다:

- (서울①) 레 ↑ **파** ↓ 레 ↓ 도<sup>19)</sup>  
 (수원②) 레 ↑ **파** ↓ 레 ↓ 도  
 (전국①) 레 ↑ **파** ↓ 레 ↓ 도  
 (대구①) 레 ↑ **파** ↓ 레 ↓ 도  
 (수원①) 라            ↑ **레** ↓ 도  
 (청주①) 라            ↑ **레** ↓ 도

18) ‘↑’은 음이 올라갈 때를, ‘↓’은 음이 내려갈 때를, 그리고 ‘→’은 같은 음으로 유지될 때를 표시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기호이다. 굵고 큰 글씨체는 음 비중에 따른 중심음을 표시한 것이다.

19) 바탕이 검은 음표는 해당 선율의 중심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전국②) 라            ↑ 레 ↓ 도

//

(서울②)        레 ↑ 파 ↓ 레 ↓ 라 ↑ 레

(청주②)        레 ↑ 파 ↓ 레 ↓ 라 ↑ 레

(대구②)        레 ↑ 파 ↓ 레 ↓ 라 ↑ 레

(전국③)        레 ↑ 파 ↓ 레 ↓ 라 ↑ 레

(수원③) 라 ↑ 레            ↓ 라 ↑ 레

(청주③) 라 ↑ 레            ↓ 라 ↑ 레

#### ㄴ. 기타②

기타① 연도노래의 진행상에 따른 선율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식①) 라 ↑ 레 ↑ 파 ↓ 레 ↓ 도

(예식②) 레 ↑ 파 ↓ 레 ↑ 파 ↓ 레 ↓ 라 ↑ 레

(예식③) 라 ↑ 레 ↑ 파 ↓ 레 ↑ 파 ↓ 레 ↓ 라 ↑ 레

(예식④) 레 ↑ 파 ↑ 솔 ↓ 레 ↑ 파 ↓ 레 ↓ 라 ↑ 레

다음의 분석은 기타②의 선율짜임새를 살피기 위해 서로 관련된 선율들을 가까이 모아 그 구성음의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이다:

(예식①) 라 ↑ 레 ↑ 파 ↓ 레 ↓ 도

//

(예식②)        레 ↑ 파        ↓ 레 ↑ 파 ↓ 레 ↓ 라 ↑ 레

(예식③) 라 ↑ 레 ↑ 파        ↓ 레 ↑ 파 ↓ 레 ↓ 라 ↑ 레

(예식④)        레 ↑ 파 ↑ 솔 ↓ 레 ↑ 파 ↓ 레 ↓ 라 ↑ 레

#### ㄷ. 원주지역 연도노래

원주지역 연도노래의 진행상에 따른 선율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주①) 라↑도↓라

(원주②) 라↑도

(원주③) 도↓솔↑도

(원주④) 라↑도↓솔↑도

다음의 분석은 원주지역 연도의 선율짜임새를 살피기 위해 서로 관련된 선율들을 가까이 모아 그 구성음의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이다:

(원주①) 라↑**도**↓라 (중심음: 도)

//

(원주②) 라            ↑**도** (중심음: 도)

(원주③)        **도**↓솔↑도 (중심음: 도)

(원주④) 라↑**도**↓솔↑도 (중심음: 도)

#### ② 연도노래와 메나리토리의 비교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분석된 각 지역 연도의 선율짜임새와 메나리토리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다만 기원에 대한 확실한 이론적 근거가 밝혀지지 않은 연도노래에 대한 비교·분석의 방법이 자칫 서양문화의 분석 논리에서 출발하였을 때 발생될 수 있는 한국 전통음악에 대한 물 이해의 위험성을 염려하면서, 여기서는 한국 전통음악의 특성 중의 하나인 ‘시김새’에 대한 비교연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sup>20)</sup> 그밖에 연도노

20) 필자는 현재 불리는 연도노래가 그것의 기원으로부터 상당부분 단순화되는 과정을 겪었으리라 추측한다. 그 원인에 있어서는 가톨릭이라는 외래문화와의 접촉뿐 아니라, 오늘날 서구 의존적으로 변화되어가는 한국 사회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래에서 드러난 메나리토리<sup>21)</sup>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몇 가지 특성만을 구분하여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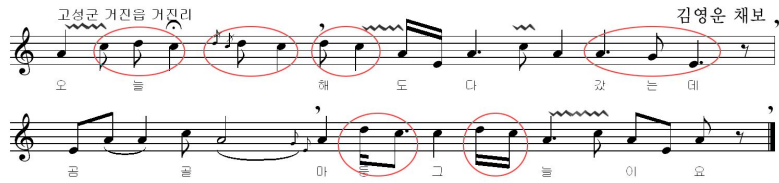
연도의 선율짜임새와 메나리토리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

<표 1>

	기타①	기타②	메나리토리	원주지역
구 성 음	라, 도, 레, 파	라, 도, 레, 파, 솔	라, 도, 레, 파, 솔	솔, 도, 라
중 심 음	레, 파	레, 파	라, 레, 파,	도
중지	중지유형	레↓도, 라↑레	레↓도, 라↑레	도↓라, 솔↑도
	중지음	레(도: 중간중지)	레(도: 중간중지)	도 (라: 중간중지)
선법	메나리토리+ 유럽중세 교회선법 (제2선법)	메나리토리+ 유럽중세 교회선법 (제2선법)	메나리토리	유럽 17세기 조성적 음악어법(장조)
선율 진행상의 특징	‘레’가 ‘도’로 하행 하며 중지하는 경 우 예외 없이 이어 지는 선율은 ‘레’를 거쳐 중심음 ‘파’를 향해 상행	‘레’가 ‘도’로 하행 하며 중지하는 경 우 예외 없이 이어 지는 선율은 ‘레’를 거쳐 중심음 ‘파’를 향해 상행	‘레’가 ‘도’로 하행 하는 경우 3도 아 래인 ‘라’를 향해 하행	

다음은 연도노래와 구별되는 메나리토리 특징을 살펴보기 위한 한 예다. ‘레(라)’가 ‘도(솔)’로 하행하는 경우 3도 아래인 ‘라(미)’를 향해 하행하는 경우와 ‘솔(레)’이 ‘파(도)’로 2도 하행하는 경우의 보기이다:

요인이리라 여겨진다. 이런 관점에서 가장 먼저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 ‘시김새’에 대한 문제다.  
21) 김영운, 「한국 민요 선법의 특징. 기존 연구 성과의 재해석을 중심으로」, 26쪽.



기타지역 연도의 선율짜임새를 통해 바라본 결과에 의하면 한국에서 현재 구전되고 있는 연도의 가락이 전형적인 메나리토리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변형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sup>22)</sup> 이와 같이 기층민요 선율 구조의 변형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역에 따라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이론적 정리는 아직까지 한국 음악학계에서도 충분히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도의 선율과 변종 메나리토리에 대한 비교 연구는 다음의 기회로 미루고, 이 글에서는 계속해서 메나리토리와 변별된 연도노래의 특성을 성가집에 수록된 도문의 선율과 비교하여보고자 한다.

## 2) 연도와 성가집 '도문'의 비교

남겨진 자료들을 근거로 했을 때, 한국 가톨릭교회 안에서 최초로 간행된 성가집은 1924년에 발행된 『조선어성가』로 기록된다. 그 후, 현재 공식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가톨릭성가』<sup>23)</sup>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서 발행된 성가집의 수는 20여 종에 이른다. 그 중 1928년에 간행된 『朝鮮語聖歌』(덕원분도회, 원산)와 1935년에 간행된 『聖歌集』(브레허, 연

22) 윤명원, 「동부민요의 음악적 특징 연구: 함경도민요의 분석을 통한 메나리토리의 특징론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 음악연구』 33(한국국악학회, 2003), 89쪽: 동부민요의 음악적 특징 가운데, 6. '레(솔)'는 '도(파)'로, '라(레)'는 '솔(도)'을 거쳐 '미(라)'로 하행 진행하는 속성이 있다; 9. '미(라)'로 마치는 중간종지와 '라(레)'로 마치는 완전종지 등이 있다.

23) 통일성가집편찬위원회 편, 『가톨릭성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5.

길)24), 1938년 간행된 『가톨릭성가』(덕원분도회, 원산)25) 그리고 1928년에 대구에서 간행된 『공교성가집』(델랑드, 대구)26) 등에는 「예수성심도문」·「예수(성명)도문」·「성모덕서도문」·「성요셉도문」과 함께 도문의 악보가 수록되어 있다. 성가집에 수록된 도문의 선율과 연도의 선율 짜임새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 ① 성가집 '도문'의 선율유형

『朝鮮語聖歌』(원산, 1928)와 『聖歌集』(연길, 1935) 그리고 『가톨릭성가』(원산, 1938)에는 「예수성심도문」·「예수성명도문」·「성모덕서도문」·「성요셉도문」이 가사와 선율에 있어 별다른 차이 없이27) 한글과 오선악보로 수록되어 있다. 『공교성가집』(대구, 1928)의 경우는 도문 전체를 수록하지 않고, 도문 선율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악보 세 개와 주의 사항을 기록하고 있다.28)

『朝鮮語聖歌』, 『聖歌集』, 『가톨릭성가』에 수록된 각 도문의 선율유형은 다음과 같다:

「예수성심도문」

(예수①) 솔↑도↑미↓레↑미↓레↓도

(예수②) 라↑도↓라↓솔↑도

- 24) 브레허 감준, 『聖歌集』, 연길, 1935: 한글과 오선보로 기록된, 총 120곡을 수록하고 있는 인쇄본 성가집이다.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 25) 보니파시오 감준, 『가톨릭성가』, 원산교구, 1938: 한글과 오선보로 기록된, 총 214곡을 수록하고 있는 인쇄본 성가집이다.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 26) 델랑드 편, 『공교성가집』, 대구, 1928년: 한글로 기록되고 오선보와 사선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현재 호남교회사연구소에서 소장하고 등사본 성가집은 서로 다른 필체의 흔적이 보이며 사용된 종이의 종류도 다른 성가들이 함께 섞여 있어 정확한 작품의 수를 짐작하기 어렵다.
- 27) 가사와 선율에서는 표기상에 따른 약간의 차이만이 지적된다.
- 28) 『朝鮮語聖歌』: 21-22쪽, 27-29쪽, 56-57쪽, 71-72쪽. 『聖歌集』: 107-114쪽. 『가톨릭성가』: 207-215쪽. 『공교성가집』: 104쪽.

(예수③) 솔↑도↑미↓레↓솔↑도

(예수④) 미↑솔↓미↓레↓도↑미

「예수성명도문」

(성명①) 도↑레↓도

(성명②) 레↓도↓라↑레

(성명③) 레↑파↓레

(성명④) 레↓도↑레

(성명⑤) 도↑레↑파↓도

(성명⑥) 레↑파↑솔↓레

(성명⑦) 레↑파↓도↓라↑레

(성명⑧) 도↓라↑레

「성모덕서도문」

(성모①) 솔↑도↑미↓레↑미↓레↓도

(성모②) 미↓도↑레↓솔↑도

(성모③) 솔↑도↑미↓레↓솔↑도

(성모④) 미↓도↑레↑미↓레↓도

「성요셉도문」

(요셉①) 솔↑도↑레↑미

(요셉②) 미↑솔↓미↓레↓도

(요셉③) 솔↑미↓도↑레↑미

(요셉④) 솔↑도↑미↓레↓도

\* 대구 『공교성가집』에 수록된 세 개의 도문선율은 다른 성가집 「성모덕서도문」의 선율②, ④와 일치한다.

성가집에 수록된 도문을 선율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 그 유형이 크게 둘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예수성심도문」과 「성모덕서도문」 그리고 「성요셉도문」 그룹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성명도문」 선율유형이다. 첫째 유형은 그 선율적 특성을 고려하여 ‘창가형’으로, 그리고 둘째 유형은 ‘성가형’으로 구분한다.<sup>29)</sup>

ㄱ. 창가형

다음의 분석은 창가형 선율 간의 유사성을 증명하기 위해 서로 관련된 선율들을 가까이 모아 그 구성음의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이다:

- (요셉①)      솔 ↑ **도**                      ↑ 레                      ↑ 미
  - (요셉③) 솔 ↑ **미**      ↓ 도                      ↑ 레                      ↑ 미
  - (예수④)      미 ↑ 솔                              ↓ **미** ↓ 레                      ↓ 도 ↑ 미
  - (예수①)      솔 ↑ **도** ↑ 미 ↓ 레 ↑ 미 ↓ 레                      ↓ 도
  - (성모①)      솔 ↑ **도** ↑ 미 ↓ 레 ↑ 미 ↓ 레                      ↓ 도
  - (요셉④)      솔 ↑ **도**                      ↑ 미 ↓ 레                      ↓ 도
  - (성모④)      미      ↓ 도      ↑ 레 ↑ 미 ↓ 레                      ↓ 도 \*
  - (요셉②)      미 ↑ 솔                              ↓ 미 ↓ 레                      ↓ 도 \*
  - (예수⑤)      솔 ↑ **도** ↑ 미 ↓ 레 ↑ 미                      ↓ 도
  - (예수③)      솔 ↑ **도** ↑ 미 ↓ 레                      ↓ 솔 ↑ 도
  - (성모③)      솔 ↑ **도** ↑ 미 ↓ 레                      ↓ 솔 ↑ 도
  - (성모②)      미      ↓ 도      ↑ 레                      ↓ 솔 ↑ 도 \*
- //
- (예수②) 라 ↑ 도 ↓ **미** ↓ 솔 ↑ 도

29) 이 글에서 ‘창가형’은 유럽 17세기 조성적 음악어법의 영향을 받은 선율유형을 일컫고, ‘성가형’은 유럽중세 교회선법 중 제2선법인 테우테루스 선법의 영향을 받은 선율유형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한다.

\* 가사를 노래 부르는 음의 수에 따라, 한 음절 위에 놓이는 음의 수가 하나일 때를 일자일음(一字一音), 한 음절 위에 놓이는 음의 수가 둘 이상일 때 일자다음(一字多音)으로 구분한다. 여기서는 일자일음의 선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선율과 다르게 중심음을 명시하지 않았다.

#### ㄴ. 성가형

다음의 분석은 성가형 선율 간의 유사성을 증명하기 위해 서로 관련된 선율들을 가까이 모아 그 구성음의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이다.

(성명①) 도 ↑ **레** ↓도

(성명⑤) 도 ↑ **레** ↑파 ↓도

//

(성명③) 레 ↑ **파** ↓레

(성명⑥) 레 ↑ **파** ↑솔 ↓레

(성명⑦) 레 ↑ **파** ↓도 ↓라 ↑레

(성명②) 레 ↓ **도** ↓라 ↑레

(성명⑧) 도 ↓ **라** ↑레

(성명④) 레 ↓ **도** ↑레

#### ② 연도와 성가집 도문의 선율짜임새 비교

먼저 성가형과 기타지역 연도노래를 비교하고, 다음으로는 창가형과 원주지역의 연도노래를 비교하고자 한다.

ㄱ. 성가형과 기타①의 선율유형 비교는 다음과 같다.

(서울①) 레 ↑ **파** ↓레 ↓도

(수원②) 레 ↑ **파** ↓레 ↓도

- (회장①) 레 ↑ **파** ↓ 레 ↓ 도  
 (대구①) 레 ↑ **파** ↓ 레 ↓ 도  
 (수원①) 라 ↑ **레** ↓ 도  
 (청주①) 라 ↑ **레** ↓ 도  
 (회장②) 라 ↑ **레** ↓ 도  
 (성명①) 도 ↑ **레** ↓ 도  
 (성명⑤) 도 ↑ **레** ↑ 파 ↓ 도  
 //  
 (서울②) 레 ↑ **파** ↓ 레 ↓ 라 ↑ 레  
 (청주②) 레 ↑ **파** ↓ 레 ↓ 라 ↑ 레  
 (대구②) 레 ↑ **파** ↓ 레 ↓ 라 ↑ 레  
 (회장③) 레 ↑ **파** ↓ 레 ↓ 라 ↑ 레  
 (성명⑦) 레 ↑ **파** ↓ 도 ↓ 라 ↑ 레  
 (성명③) 레 ↑ **파** ↓ 레  
 (성명⑥) 레 ↑ **파** ↑ 솔 ↓ 레  
 (수원③) 라 ↑ **레** ↓ 라 ↑ 레  
 (청주③) 라 ↑ **레** ↓ 라 ↑ 레  
 (성명②) 레 ↓ **도** ↓ 라 ↑ 레  
 (성명⑧) 도 ↓ **레** ↑ 레  
 (성명④) 레 ↓ **도** ↑ 레

성가형과 기타②의 선율유형 비교는 다음과 같다. 기타②의 선율짜임새는 기본적으로 기타①과 큰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 단지 선율 구성음에 있어서 기타①에 비해 ‘솔’이 더 출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성가형(성명⑥)의 선율에서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성가형과 기타②의 선율유형 비교는 다음과 같다.

- (예식⑤) 레 ↑ **라** ↑ 솔 ↓ 레 ↑ 파 ↓ 레 ↓ 라 ↑ 레  
 (성명⑥) 레 ↑ **라** ↑ 솔 ↓ 레

#### ㄷ. 창가형과 원주지역의 연도노래 비교

원주지역 연도노래의 특성이 기타지역의 연도선율과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 이에 대해서는 창가형과의 비교를 통해 원주 지역 연도노래에 대한 또 다른 논지의 가능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앞서 이루어진 원주지역 연도노래의 분석 결과를 성가집의 도문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의 타당성을 제시하는 선율유형은 창가형이다. 선율의 구성음과 중심음 그리고 종지음에 이르기까지 원주지역의 연도노래는 창가형과 그 짜임새에 있어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예수성심도문」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②와 원주지역 연도노래의 짜임새를 비교를 비교한 것이다:

(원주①) 라 ↑ **도** ↓ 라

//

(원주②) 라 ↑ **도** ↓ 솔 ↑ 도

(예수②) 라 ↑ 도 ↓ **라** ↓ 솔 ↑ 도

원주지역 연도노래와 「예수성심도문」의 (예수②)는 구성음에 있어서 동일한 음원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선율짜임새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중심음의 경우, (예수②)와 원주지역 연도노래는 각각 ‘라’와 ‘도’로 서로 다른 음의 지배를 받고 있음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성심도문」의 선법과 중심음 ‘도’와 ‘미’의 전체에서의 비중을 고려한다면 (예수②)에서의 ‘라’로의 중심음 이동은 예외적인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체 선율구조를 고려한다면, 「예수성심도문」

의 선율(예수<sup>②</sup>)와의 관계 안에서 원주지역 연도 선율짜임새의 이론적 근거를 논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이 원주지역 연도와 성가집 도문 사이의 유사성을 밝혔다고 해서 그 궁금증이 말끔하게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성가집은 모두 네 종류로 그 중 『朝鮮語聖歌』와 『가톨릭 성가』가 원산, 『聖歌集』이 연길의 성가집으로 지역적으로 북쪽에 해당된다. 그러나 『공교성가집』은 대구에서 발행된 것으로 성가집에 수록된 선율은,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그 기록을 근거로 할 때 다른 성가집의 전통과 다르다고 판단할 수 없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분석한 도문선율의 전통이 지형적으로 북쪽 지역에만 해당되는 전통이라 볼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네 종류의 성가집에 수록된 도문의 전통이 당시 한국 교회 전체에서 불려졌다는 문헌적 근거도 아직 관찰되지 못한 실정이다. 원주 지역의 연도노래의 특성에 대해서는 성가집 도문의 비교 결과를 둘러싸고 발생될 수 있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제시 정도로 정리하고자 한다.

ㄷ. 다음은 연도와 성가집 도문의 선율짜임새를 비교한 것이다

<표 2>

	창가형	원주지역	성가형	기타지역	
구성음	도, 레, 미, 솔, 리*	솔, 라, 도	라, 도, 레, 파, 솔**		
중심음	도, 미	도	라, 도, 레 파		
중지	중지유형	도↑미, 도↑레↑미, 솔↑도, 미↓레↓도, 미↓레↑미↓도,	솔↑도	레↓도, 레↑파↓도, 파↓레, 파↑솔↓레, 도↓라↑레, 도↑레	<표1> 참조
	중지음	도(미: 중간중지)	도	레(도: 중간중지)	

선법	유럽 17세기 조성적 음악어법(장조)	유럽 17세기 조성적 음악어법(장조)	유럽중세 교회선법 (제2선법)
----	----------------------	----------------------	------------------

\* (예수②)에서 유일하게 사용한다.

\*\* (성명⑥)에서 유일하게 사용한다.

### 3) 연도와 유럽중세 교회선법의 비교

먼저 이루어진 각 지역 연도노래에 대한 분석에서 그 차이점에 따라 기타①과 기타② 그리고 원주지역으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어진 연도노래와 메나리토리의 비교·분석 작업에서 연도와 메나리토리의 관계성뿐 아니라 변화의 내용까지도 관찰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성가집 도문의 선율에 대한 분석에서는 선율유형에 따라 창가형과 성가형으로 구분하였다. 선율짜임새에 있어서 창가형의 경우에는 원주지역 연도노래와, 그리고 성가형의 경우는 기타지역 연도노래와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무엇보다도 연도의 선율짜임새와 메나리토리와 비교에서 일치하지 않았던 연도의 선율적 특성에 대해 그 관계성의 여부를 유럽 중세 교회음악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제2선법과 비교하고자 하는 연도노래의 특징은, 선율의 진행상에 따른 구분으로, ‘레’가 ‘도’로 하행하며 중간 중지할 때 ‘레’를 거쳐 중심음 ‘파’로 상행하기 위한 ‘도’의 경과적 쓰임새와 중심음 ‘파’가 중심음 ‘레’로 하행하기 전에 ‘솔’을 거쳐 하행하는 ‘솔’의 경과적 기능이다.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가톨릭교회의 전례성가 중 제2선법을 사용하는 그레고리오성가의 선율들의 일부를 보기로 활용하고자 한다.<sup>30)</sup>

1. 연도노래(기타①과 기타②)에서 보이는 중간 중지음 ‘도’의 경과적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레↓도↑파’의 선율진행과 유사한 유형을 제2선

30) *Graduale Triplex*, Solesmis, MCMLXXIX.

법 그레고리오성가에서 찾아본 예들이다:

Graduale Triplex, p. 41

Fi- li- us me- us es tu, e- go ho- di- e ge- nu- i te.

Graduale Triplex, p. 56

in ma- nu e- ius et pot- éstas,

Graduale Triplex, p. 66

mé- lí- us quae igno-rán- ter

Graduale Triplex, p.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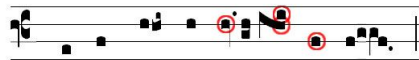
e- um: longi- tu- dine

2. 연도노래(기타②)에서 보이는 ‘솔’의 경과적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파↑솔↓레’의 선율진행과 유사한 유형을 제2선법 그레고리오성가에서 찾아본 예들이다.

Graduale Triplex, p.41

in ma- nu e- ius et pot- éstas,

## Graduale Triplex, p. 73



et a ver- bo á- spe-ro.

## Graduale Triplex, p. 322



Alle- lú- ia

연도와 그레고리오성가의 비교·분석 작업은 기타지역의 연도노래와 제2선법의 기본적인 선율짜임새가 동일하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하여 증명된 기타지역의 연도노래와 유럽 중세 교회선법 중 제2선법의 선율짜임새의 관계성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논지를 제공하게 된다.

### 3. 연도에 대한 교회적 의의와 문화적 의의

#### 1) 교회적 의의

일정 종교의 신앙행위가 그가 속한 사회의 한 문화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교문화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연도가 한국 문화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도에 대한 교회적 의의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연도에 대한 교회적 의의는 전례 개념 안에서의 해석과 준전례로서의 의의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① 연도에 대한 전례 개념 안에서의 해석

가톨릭교회는 미사 곧 성체성사를 포함한 일곱 성사들, 준성사들, 성무일도, 장례 등<sup>31)</sup> 교회가 성서나 성전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공인한 예식의 규범에 따라 진행되는 공적인 종교의식을 ‘전례(典禮)’라 명명하며, 일반적인(사적인) 신심행위와 구분하고 있다. 전례, 특히 성사전례는 *ex opere operato*<sup>32)</sup> 즉 다른 무엇에 의해서도 그 의미와 성질이 변질되지 않고 그것 스스로 완전함을 부여받는 종교의식이다.

『상장예식』<sup>33)</sup>의 규범에 따라 행해지는 상장례는 가톨릭 전례이다. 그러나 연도는 상장례가 전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일부분만이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전통을 일반적으로 일컫는 것이기에 전례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연도를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170년 가까이 이를 살아온 가톨릭신자들은 연도가 ‘세상을 떠난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해왔다. 연도가 한국 교회에서 노래 불리기 시작한 그 옛날에 성직자도, 수도자도, 성서 한 권 제대로 접할 수 없던 그 시대에도 그리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진 듯 보이는 오늘날에도 연도에 대한 천주교 신자들의 애착은, 그것의 전례적 근거를 밝히는 데 앞서, 삶의 터전에서 믿음의 실천으로 이어져왔다.

먼저 연도의 구성을 미사(Missa)의 말씀의 전례와 시간전례(Liturgia Horarum)인 성무일도와 비교하여 본다. 『상장예식』 안에 수록된 연도<sup>34)</sup>는 시편 129(130)와 시편 50(51),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한 호칭기도

31) 『가톨릭교회교리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3년 참조.

32) ‘*ex opere operato*’와 ‘*ex opere operantis*’는 가톨릭교회의 성사와 준성사의 은총의 효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다. 여기서의 성무일도와 말씀의 전례를 제외한 전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사전례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말하자면, 전례의 어원에 있어서 그 의미를 온전히 갖추고 말씀의 전례와 유사한 형식을 지니고 있는 연도가 교회에 의해 전례행위의 하나로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33)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편, 『상장예식』, 가톨릭출판사, 2003.

그리고 연령(연옥영혼)을 돕는 세 개의 찬미기도로 이루어져 있다. 연도는, 상장례와는 별도로 행해지는 경우가 더 많지만, 엄연히 교회가 정식으로 공인한 예식 규범의 일부로서 그 부분의 구성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의 구성을 미사 중 말씀의 전례<sup>35)</sup>와 비교해 보면, 연도의 ‘시편’, ‘호칭기도’, ‘연령을 돕는 찬미기도’는 각각 말씀의 전례 안에서 ‘말씀’, ‘자비송’, ‘대영광송(규정에 따라)’의 형식과 내용을 지니고 있는 요소들로, 연도의 구성이 간략하나마 말씀의 전례처럼 그 모양새를 갖추고 있음도 발견할 수 있다. ‘시편’, ‘칭원의 기도’, ‘찬미기도’로 구성된 성무일도<sup>36)</sup>와의 비교에서도 그 기본적인 구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연도의 구성이 말씀의 전례와 유사한 구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연도의 의미를 전례의 어원을 통해 살펴본다. “전례의 원어(原語)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10, 11에 나오는 그리스어의 ‘leitourgia’이며,<sup>37)</sup> ‘민중(laos)에 대한 봉사(ergon)’를 의미하였다. 또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교회의 구빈사업(救貧事業)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였다(2고린 9,12).”<sup>38)</sup> 전례가 ‘민중에 대한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34)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편, 『상장예식』, 54-107쪽.

35) 천주교 미사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말씀의 전례는 입당송, 참회예식, 자비송, 대영광송, 본기도, 제1독서, 화답송, 제2독서, 복음환호송, 복음, 강론, 신앙고백, 보편지향기도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성서(입당송, 제1독서, 화답송, 제2독서, 복음환호송, 복음)와 성전(자비송, 영광송, 신앙고백)에 의거한 이러한 내용들 하나하나를 말씀의 전례로 포함시키기 위해 교회는 참으로 오랜 시간(많은 경우 신심 행위에서 출발하게 되는 전례 요소들은 그 시작으로부터 수세기에 걸친 오랜 시간의 신앙적 검증을 통해 전례를 구성하는 일부분으로 참여하게 된다)을 소요하여 공식적인 말씀의 전례 예규를 완성하게 된다.

36) 하루의 매 시간과 인간의 활동을 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공식 규범서에 의한 교회의 기도다. 그 구성은 시작기도, 찬미가, 시편, 성경소구, 칭원의 기도, 주의 기도, 마침기도로 이루어져 있다.

37) 성서 밖 그리스말에서 쓰던 말로 성서가 골라 쓴 말이다. 이 계열의 낱말은 사도행전이나 서간 같은 신약의 다른 성서에도 찾을 수 있다. 또 구약성서 그리스어역인 70인역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한다면 전례의 어원적인 의미에서 살펴보았을 때, ‘세상을 떠난 이웃에 대한 봉사’로서의 연도는 그 신앙적 행위 안에 전례의 근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성찬례 거행의 정신에 비추어 본 성체성사의 의미 안에서 연도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된 구원의 신비로 곧 사랑의 실천을 의미한다. 교회는 공동체가 거행하는 성체성사를 통해서 “단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모인 곳에는 나는 그 가운데 있다.”(마태 18, 20)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한다.<sup>39)</sup> 더불어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 곧 사랑의 실천을 살아갈 힘을 얻고, 이러한 성체성사의 의미를 살아가도록 파견을 받는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공동체가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해 노래 부른다는 것은 ‘죽은 이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 연도의 의미를 성체성사, 성찬례 거행의 정신의 연장선상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sup>40)</sup> 지금까지 연도에 대한 전례 개념 안에서의 해석을 살펴보았지만, 연도가 교회가 성서나 성전에 의해 정식으로 공인한 상장례의 일부분으로 전례로서의 조건을 갖추었을지라도, 교회는 연도 그 자체를 독립시켜 전례 행위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지 않다.

## ② 연도의 준전례로서의 의의

이렇듯 전례의 본질적인 요소를 대부분 갖추고 전례의 전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긴요하고 보완적인 의식을 교회 안에서는 준전례

38) 한국 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편, 「전례」, 『한국 가톨릭대사전』 10, 분도출판사, 2004, 7403-7408쪽.

39)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거룩한 공의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년(2판), 39쪽(7항).

40) 강영애, 「한국천주교 장례노래(연도)에 관한 연구」, 49쪽: 1863년 경 다블뤼 주교의 서한에서는 “조선말로 된 장례식 기도문과 예절을 공포한 뒤로 많은 신자들이 외교인을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공공연히 행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paraliturgia)<sup>41)</sup>라 일컬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준전례는 ex opere operantis 즉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는 신앙행위로, 다른 무엇에 의해서도 그 의미와 성질이 변질되지 않고 그것 스스로 완전함을 부여받는 전례(특히 성사전례, ex opere operato)와는 구분된다. 전례가 ‘구원의 신비’를 체험하고 실현하는 종교행위라 한다면, 준전례는 ‘구원의 신비’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교행위라 할 수 있다.

한국과 같은 선교지역의 상황에서도 가톨릭 전례의 고유한 의미와 성질은 온전히 보전되고 있다. 전례의 본성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조건하에 가톨릭의 전례는 그 지역의 문화와 관습에 적용할 수 있다고는 하나, 형식과 내용의 관계는 그 어느 한쪽만이 의도적으로 변형될 수 없는 것이기에, 가톨릭 전례의 한국 문화 적용에 있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은 이미 예상되던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교회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연도는 준전례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글에서 가톨릭 준전례의 개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것의 문화적 가치가 세계 여러 나라의 가톨릭 수용사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준전례의 형성과 성장과정은 가톨릭이 전교된 지역문화와 정서에 뿌리를 두고 그 지역문화와의 융화현상으로서 파악된다. 그렇기에 연도를 한국 문화와 정서에 근간을 두고 생성·발전되어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 가톨릭의 준전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로마교회의 역사에서 연도와 같은 신앙행위는 그 예를 찾

41) 가톨릭교회 안에서 자유로운 형식의 대중 신심 중 특별히 공식적인 전례를 보완하는 데 그 효과가 뛰어나다고 여겨지는 종교의식을 일컫는 용어다. 용어의 기원은 알 수 없으나, 가톨릭 내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AA.VV. (a cura di G. Mele e P. Sassu), *Liturgia e paraliturgia nella tradizione orale*. Atti del I Convegno di Studi. Santu Lussurgiu(Oristano, 12-15 dicembre 1991), Universitas, Cagliari 1992. Joseph Ratzinger, *Introduzione allo spirito della Liturgia*, Milano 2001, San Paolo 참조

아보기 어렵다. 이는 곧 연도가 지역적 고유성을 지닌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연도는 그리스도의 신비와 참된 교회의 본질을 다른 이에게 드러내 보이고 명시하는 교회의 전례가 한국인의 심성과 한국의 문화에 적용된 모습으로 형성된 것이다.<sup>42)</sup>

## 2) 문화적 의의

앞서 이루어진 연도에 대한 연구와 연도의 교회적 의의에 대한 이해는, 연도가 내용에 있어서는 가톨릭 전례의 본질적 조건을 갖추고 그 형식에 있어서는 한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에 맞추어 변화되어 지금까지 전통으로 보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뿐만 아니라 연도의 선율짜임새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를 통해서도 동양과 서양의 만남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 만남은 음악어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한국 음악과 유럽음악의 만남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그 만남이 증명하는 또 다른 사실 하나는 가톨릭과 한국 문화의 동시대적 만남과 ‘융화’라 할 수 있다. 가톨릭의 종교성이 한국 문화의 고유성 안에 융화될 수 있었음은, 그리고 그 모습 안에 아직까지도 한국과 가톨릭 둘 모두 공존하고 있음은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 가톨릭과 한국 문화 간의 만남이 가능했음을 확인하게 한다. 한국인과 가톨릭신자는 연도라는 형식을 빌어 사후세계에 대한 그들의 소중한 염원과 믿음을 담아낸 것이다.

계속해서 한국 문화로서 연도가 지니는 가치를 공동체문화와 기층음악문화의 관련성 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① 한국 공동체문화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본 연도의 문화적 의의  
가톨릭교회에 있어 공동체성은 가톨릭을 대표하는 정신 중의 하나이

42) 『가톨릭교회교리서』, 481~482쪽(1204-1205항).

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모인 곳에 나는 그 가운데 있다.”(마태 18, 20)는 복음과 같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교회는 바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와 인식체계의 변화는 가톨릭의 공동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혼란스럽게 만들며 공동체 자체를 와해시키는 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오늘의 세계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문제는 여전히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교회의 변화와는 다르게 한국의 가톨릭은 교회 본래의 정신을 잃지 않고 공동체 정신의 전통을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유지해가고 있다. 그 예가 바로 연도이다.

가톨릭 전례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 가톨릭의 특성 중에서 두드러진 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교우촌을 형성하며 이루어진 신자들의 집단생활과 집단행위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 가톨릭의 초기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신자들의 이러한 공동체 생활은 사실상 박해로 인한 당연한 결과였다. 더구나 이와 같은 예는 가톨릭뿐 아니라 세계 여러 종교의 역사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국 가톨릭이 가지는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 가톨릭 초기 공동체의 전통이 연도를 통해 현재까지 남아서 전승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톨릭신자들은 더 이상 전과 같이 함께 생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 안에는 연도를 통해 전승되는 공동체가 살아 있다. 연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 한국 가톨릭 공동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이해를 한국 민속의 특징 중의 하나인 두레나 품앗이와 같은 공동노동문화와 전통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톨릭 전례 구성 요소들의 많은 부분은 민중의 일반적인 신심행위로 부터 시작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전례에 합류된 것이다.<sup>43)</sup> 그리고 그

43) 예를 들면 가톨릭 미사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자비송’, ‘영광송’, ‘사도신경’, ‘하느님의 어린양’ 등은 전례에 합류되기 이미 오래 전부터 신심행위로서 그들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러한 신심행위는 전례 안에서 거행되는 경우 이외에도, 전과 같이, 전례적 제약과는 무관하게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신심행위로서 그 역할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연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미 교회에 의해 공인된 『상장예식』에서 별도로 독립하여 가톨릭 상장례의 전례적 의미를 부각하는 준전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세계교회의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연도와 같은 한국 가톨릭의 특성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그 해답 역시 두레와 품앗이와 같은 한국 공동체문화의 연장선상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한국인의 생활문화 속에는 모내기, 논매기 등 수도작 농업과 관련된 ‘두레’나 피륙 짜내기와 관련된 길쌈두레 그리고 두레보다는 그 규모가 작은 품앗이와 같은 공동노동형태가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공동노동형태는 친구나 이웃처럼 이무러운 사이들끼리 서로 품을 교환하며, 의식주 등 생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삶의 모습이었다. 두레나 품앗이는 이무러운 사람들끼리 모여 일하면서 그들의 희노애락을 노래하고 이야기하며 삶을 공유하는 터전이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두레나 품앗이는 물질뿐 아니라 정신문화를 동시에 생산해내는 생산문화의 현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두레와 품앗이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sup>44)</sup>

두레와 품앗이와 같은 공동노동형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문화에 있어 공동체성은 일반 사람들의 일상생활 안에 깊이 뿌리 내린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이며 심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문화와 정서가 한국의 가톨릭신자들에게 있어 예외일 수 없듯이, 그들이 형성하게 되는 한국에서의 가톨릭문화 또한 그러한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는 상황은 사실상 상상하기 힘든 문제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연도를 통해 전승되는 한국 가톨릭의 공동체문화가 한국의 전통적인 공동체문화에

44) 이경엽, 「길쌈두레의 구성과 기능」, 『한국민속학』 25(한국민속학회, 1993), 237-265쪽 참조.

근간을 두고 가톨릭의 정신을 실천하는 한국 문화의 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 ② 한국 기층 음악문화와의 만남·융화 과정에서 살펴본 연도의 문화적 의의

### ㄱ. 연도는 왜 메나리토리인가?

연도와 한국 기층 음악문화와의 만남과 융화의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연도노래의 근간을 동부민요 즉 메나리토리에서 찾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동부민요란 엄밀히 말해서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이동지역 민요’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보형은 동부민요의 음조직을 ‘메나리토리’라 명명하면서 메나리토리 민요(民謠)가 기층 음악문화를 이루는 지역이 함경도 전 지역, 서북부를 제외한 강원도 전 지역, 경상도 전 지역에 이르며 그밖에 경기도 동남부, 충청도 동부, 전라도 동북부지역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sup>45)</sup>

먼저, 함경도와 강원도 그리고 경상도 지역의 기층 음악문화인 메나리토리가 전국적인 분포를 가지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는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불교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 한국 전통 불교음악을 꼽자면 범패(梵唄)·화청(和淸)·염불(念佛)을 들겠는데 이들 음악의 많은 부분이 메나리토리로 되어 있다.<sup>46)</sup> 신라는 메나리권(圈)에서 나라를 일으켜 삼국(三國)을 통일한다. 불교대국이었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이미 향토 기층 음악문화의 영향권에 들어간 불교음악이 불교의 보급과 함께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게 되는데, 이는 메나리토리의 전국적인 분포와도 연결지어서

45) 이보형, 「메나리토리 무가·민요권의 음악문화」, 『한국 문화인류학』 15(한국 문화인류학회, 1983), 249쪽.

46) 이보형, 「메나리토리 무가·민요권의 음악문화」, 246쪽.

생각할 수 있는 문제다.

다음으로는, 메나리토리의 지역분포와 연도노래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17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전승의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모든 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전해지는 한국 가톨릭의 연도노래는 그 근간을 메나리토리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선 분석에서 증명된 메나리토리의 변화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메나리토리에 선율짜임새의 뿌리를 두고 있는 연도노래의 전국적인 분포에 대한 이해는 한국 가톨릭 초기 공동체 ‘교우촌’의 지역분포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할 수 있다. 전래 이후 가톨릭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된 신유해(순조 1년, 1801년)부터 가톨릭신자들은 서울로부터 은신처를 찾아 안성·용인·광주·여주·이천·장호원 등 경기도 동남부, 진천 등 충청도 동부, 진안·고산 등 전라도 동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며 비밀리에 신앙 공동체(교우촌)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병인박해(고종 3년, 1866년)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박해로 신자들은 그들의 은신처를 태백산맥줄기를 타고 동남쪽으로 이동하며 강원도와 경상도 전 지역에 교우촌을 형성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가톨릭신자들의 교우촌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이동지역으로 집중되는데, 교우촌의 이러한 지역분포는 메나리토리가 향토 기층 음악문화인 지역분포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이는 연도가 한국 기층 음악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전승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ㄴ. 연도노래가 한국 음악의 여러 갈래 중에서 왜 하필이면 기층 음악문화 즉 민요와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무가(巫歌)가 기층 음악문화와 함께 성장해온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진 바다. 범패(梵唄)와 화청(和淸) 그리고 염불(念佛)과 같은 불교음악의 경우도, 불교의 보급과 함께 기층 음악문화와 깊은 관련 속에서 한국 문화에 적응해 왔다. 불교음악의 향토화는 곧 불교의 대중화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민중의 음악인 민요가 불교음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리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하기 전의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무속을 숭배하거나 불교신자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의 무속과 불교음악문화에 대한 경험은, 아직은 낮은 외래종교의 경건함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전례에 따른 상장례를 어렵지 않게 민요와 섞어 노래 부를 수 있었으리라 짐작해 본다. 기존의 한국 종교음악문화와 기층 음악문화와의 긴밀한 관계와 그로부터의 경험은 한국 문화 안의 가톨릭 수용이 주체적일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이다.

위에서 간략하게 서술한 두레나 품앗이와 같은 공동노동형태는 힘들고 지루한 일을 같이 해내고자 구성된 조직이다. 그러나 두레와 품앗이의 전 과정은 품을 교환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곳에서는 노래와 이야기 그리고 갖가지 놀이가 행해졌던 것이다. 일과 노래나 놀이를 함께함으로써 노동의 고통을 잊고 흥을 내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흥은 노래와 놀이의 생산적 기능을 설명한다. 또한 흥은 공동노동의 계기이자 결과이기도 하다. 여기서 노래와 놀이는 공동노동조직의 공동체적 면모를 가장 잘 보여준다. 두레나 품앗이에서는 많은 민요가 불려졌다. 이는 집단노동 속에서 자신들의 의식을 공유하고 체득한 결과에서 비롯된 문화행위인 것이다. 두레와 품앗이는 두레꾼, 품앗이꾼들이 기존 전승되는 노래를 자신들에게 적합한 형태로 변화시켜 부르기도 하며, 민요를 창작하고 습득하는 교육의 공간이 되기도 하였다.<sup>47)</sup>

두레나 품앗이의 공동노동 현장에서 기층 음악문화가 창작되고 향유되듯이, 한국인의 공동체문화는 기층문화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성장되어 간다. 한국 공동체문화의 현장이 곧 한국 기층문화의 창작과 향유가

47) 이경엽, 「길쌈두레의 구성과 기능」, 255-257쪽 참조.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사실은, 한국 공동체문화에 근간을 두고 있는 연도가 한국 기층 음악문화인 민요에 실려 노래 불리는 것이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 4. 나가는 말

이 글은 가톨릭 장례노래인 연도에 대한 선율짜임새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 문화 속에 주체적으로 수용된 가톨릭문화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해 보았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 근간을 두고 형성되고 성장한 연도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다시금 새로운 문화와의 만남 속에서 융화되었는지를 관찰할 수 있었다.

한국 문화 안에서의 기층문화와 종교문화와의 관계, 그리고 메나리토리의 지역적 분포와 가톨릭 교우촌의 지역 분포가 일치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톨릭문화로서의 연도가 지니는 한국 문화 안에서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연도노래의 선율짜임새를 통한 비교·분석은 그러한 사실의 일부를 확인시켜 주었다.

아직까지 외래종교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가톨릭교회의 현실 속에서 한국 문화로서의 연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가톨릭의 한국 문화 적용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한국 가톨릭의 노력은, 한국 문화 안에서 종교문화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한국 사회의 미래지향적 가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종교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 검색어: 연도, 문화융화, 한국교회, 종교민요

참고악보 1) 도문 ① 예수성심도문

## 예수성심도문

聖歌集 (연길, 1935)



② 예수성명도문

예수성명도문

聖歌集 (연길, 1935)



천 주 여우리를금년히넥 이 소 서 그리스도 여우리를금년 히 넥 이 소 서



천 주 여우리를금년히넥 이 소 서 예 수 여우리를드르 소 서



예 수 여우리를드러 허 락 하 소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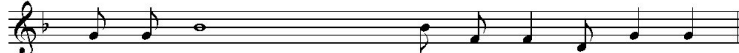
하 늘 에게신 천 주 성 부 여 우 리 를금년 히 넥 이 소 서



성 부의빛이 신 예 수 우 리 를 금 년 히 넥 이 소 서



하 를 하 시 는 은 택 으 로 예 수 는우리를 관 유 하 소 서



천 주 의고양세상의죄를면하 야 주 시 는 자 여



예 수 는우리를 관 유 하 소 서



예 수 여우리를드 르 소 서 예 수 여우리를드러허락하 소 서



## ③ 성모덕서도문

## 성모덕서도문

聖歌集 (연길, 1935)

천 주 여 우 리 를 긍 년 히 녁 이 소 서

천 주 여 우 리 를 긍 년 히 녁 이 소 서

그 리 스 도 여 우 리 를 드 르 소 서 그 리 스 도 여우 리 를 드 러 허 락 하 소 서

하 늘 에 게 신 천 주 성 부 여 우 리 를 긍 년 히 녁 이 소 서

- - 천 주 성 신 이 여 우 리 를 긍 년 히 녁 이 소 서

- - 성 - 마 - 리 아 우 리 를 위 하 야 비 라 소 서

천 주 의 고 앙 세 상 의 죄 를 면 하 야 주 시 는 자 여

오 주 는 우 리 를 관 유 하 소 서

오 주 는 우 리 를 긍 년 히 녁 이 소 서

주 의 천 신 이 마 리 아 께 보 하 매

④ 성요셉도문

# 성요셉도문

聖歌集 (연길, 1935)

천 주 여 우리를금년 히 녁 이 소 서  
 그리스도 여 우리를금년 히 녁 이 소 서  
 천 주 여 우리를금년 히 녁 이 소 서  
 그 리 스 도 여 우 리 를 드 르 소 서  
 그 리 스 도 여 우 리 를 드러허락 하 소 서  
 하 늘 에게신 천 주 성 부 여  
 우 리 를 금 년 히 녁 이 소 서  
 점 마 리 아  
 우 리 를 위 하 야 비 르 소 서  
 세 상 의 죄를 면하여주시는 자 천주의고양 이 여  
 오 주 는 우 리 를 관유 하 소 서  
 영 복 을기득히납으신대성 요 셉 은 우리를위하여 비 르 사



참고악보 2) 연도<sup>48)</sup>

## ① 원주

주 여 나 깊 고 그 옥 한 곳 에 서 네 게 부 르 짓 나 이 다  
 주 여 내 소 리 를 굽 어 들 으 소 서  
 네 귀 를 기 울 이 사 내 간 구 하 는 소 리 를 들 으 소 서

## ② 수원

주 여 나 깊 고 그 옥 한 곳 에 서 네 게 부 르 짓 나 이 다  
 주 여 내 소 리 를 굽 어 들 으 소 서  
 네 - 귀 를 기 울 이 사 내 간 구 하 는 소 리 를 들 으 소 서

## ③ 대구

주 여 나 깊 고 그 옥 한 곳 에 서 네 게 부 르 짓 나 이 다  
 주 여 내 소 리 를 굽 어 들 으 소 서  
 네 - 귀 를 기 울 이 사 내 간 구 하 는 소 리 를 들 으 소 서

48) 연도의 악보는 논문에 필요한 일부분만을 참고로 수록하였음.

④ 청주

주 여 - 나 길 고 그 옥 한 곳 에 서 네 게 부 르 쫓 나 이 다  
주 여 - 내 소 리 를 굽 어 들 으 소 서  
네 - 귀 를 기 울 이 사 내 간 구 하 는 소 리 를 들 으 소 서

⑤ 서울

주 여 나 길 고 그 옥 한 곳 에 서 네 게 부 르 쫓 나 이 다  
주 여 내 소 리 를 굽 어 들 으 - 소 서  
네 - 귀 를 기 울 이 사 내 간 구 하 는 소 리 를 들 으 소 서

⑥ 회장

주 여 나 길 고 그 옥 한 곳 에 서 네 게 부 르 쫓 나 이 다  
주 여 내 소 리 를 굽 어 들 으 소 서  
네 귀 를 기 울 이 사 내 간 구 하 는 소 리 를 들 으 소 서

## ⑦ 예식(시편 51)

뉘 - 신 께 오 로 지 - 당 신 께 죄 를 없 었 삼 고  
 뉘 - 신 의 눈 앞 에 서 - 죄 를 지 었 - 사 - 오 니

## ⑧ 예식(시편 130)

깊 은 - 구 령 속 에 서 - 주 님 께 부 르 짓 사 오 니  
 주 님 - 제 소 리 를 들 어 - 주 - 소 서  
 제 가 - 비 는 소 리 를 귀 여 겨 - 들 으 소 서

K C I

### 참고문헌

- 강영애, 「한국천주교 장례노래(연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강영애, 「천주교 연도(위령기도)의 음악적 연구」, 『예술논집』 4(전남대학교 예술연구소, 2001).
- 김영운, 「한국 민요 선법의 특징. 기존 연구 성과의 재해석을 중심으로」, 『한국 음악연구』 28(한국국악학회, 2000).
- 윤명원, 「동부민요의 음악적 특징 연구. 함경도민요의 분석을 통한 메나리토리의 특징론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 음악연구』 33(한국국악학회, 2003).
- 이경엽, 「길쌈두레의 구성과 기능」, 『한국민속학』 25(한국민속학회, 1993).
- 이보형, 「메나리토리 무가·민요권의 음악문화」, 『한국 문화인류학』 15(한국 문화인류학회, 1983).
- 최종민 「천주교 연도의 음악구조 연구. 구연도를 중심으로」, 『음악과 민족』 제27호, 117~204쪽(부산: 민족음악학회 2004).
- AA.VV. (a cura di G. Mele e P. Sassu), *Liturgia e paraliturgia nella tradizione orale. Atti del I Convegno di Studi. Santu Lussurgiu(Oristano, 12-15 dicembre 1991)*, Universitas, Cagliari 1992.
- Joseph Ratzinger, *Introduzione allo spirito della Liturgia*, Milano 2001, San Paolo.
- 덕원분도회 편, 『朝鮮語聖歌』, 원산, 1928.
- 델랑드 편, 『공교성가집』, 대구, 1928.
- 브레허 감준, 『聖歌集』, 연길, 1935.
- 보니파시오 감준, 『가톨릭성가』, 원산교구, 1938.
- Graduale Triplex, Solesmis, MCMLXXIX.
- 『가톨릭교회교리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3.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거룩한 공의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년(2판).

통일성가집편찬위원회 편, 『가톨릭성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5.

한국 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편, 『한국 가톨릭대사전』 10, 분도출판사, 2004.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편, 『상장예식』, 가톨릭출판사, 2003.

K C I

<Abstract>

## **Another Perspective on Catholic Music as Korean Culture**

Kim, Soo Jung

By a systematic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s funeral song (Yeondo), this article was able to show another perspective of the creative contribution that Korean Catholicism has made to the culture of the country. And it was able to verify how the musical genre Yeondo, which came to be and which developed in the context of Korean culture, over time managed to harmonize with a culture that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one in which it originated.

The correspondence between local culture and religion, and in particular between local musical forms and the integration of the Catholic Church into Korean society, constitutes above all a theoretical confirmation of the valuable role that Yeondo has played in Korean culture. And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Yeondo song has confirmed the theory mentioned above.

At a time when the Catholic Church is still considered a foreign religion in Korea, a study and a comprehension of the Yeondo song prove to be promising ways for the inculturation of the Catholic Church. Given the future prospects of Korea, the value of an effort in this direction by the Korean Catholic Church must not be underestimated, because the Catholic Church must walk together with the society into which it inserts itself.

© Keyword: Yeondo, inculturati, Korean Catholicism, religion song